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해 1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 콘서트판테 형식의 오페라 '망부운' 공연 모습.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한·중 성악가들이 펼치는 사랑의 대서사시

광주시립오페라단,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29-30일 문예회관 대극장

57년 만에 완전한 ‘오페라’ 형식 갖춰
2개 언어 버전…시립예술단 역량 집결
“광주 대표 브랜드공연 자리매김 할 터”

광주 출신의 위대한 음악가이자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작곡가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望夫云)이 완전한 오페라 형식을 갖춰 5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 특히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첫 창작오페라이자,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개의 언어로 한 차례씩 공연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오는 29-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망부운'을 공연한다.

오페라 '망부운'은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구름이 돼버린 공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작곡가 정율성의 대표 오페라다. 이 작품은 1962년 북경국립오페라단에서 초연된 후 지난 60여년간 문헌 채로 남겨져 있었다.

정율성 선생의 딸인 정소제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오페라 '망부운'의 악보와 자료들을 복원, 각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해 콘서트판테(오페라의 무대장치와 성악가들의 의상, 분장을 제외하고 만든 음악회 형식의 오페라) 형식의 '망부운'을 한 차례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은 콘서트판테 형식에서 더욱 발전시켜, 완전한 오페라 형식을 갖춘 무대다. 악보 복원부터 내용

재구성 등 각색이 이뤄졌고, 130분 러닝타임의 오페라로 탄생했다.

'망부운'은 중국 '백옥' 설화를 바탕으로,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고대 당나라 시대 남조국의 공주 '아형'은 계모인 왕후로부터 정략결혼을 강요받지만, 정직하고 용감한 사냥꾼 '아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만다.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려는 왕후와 법사 나전의 술수와 음모 속, 두 연인의 운명적 사랑이 펼쳐난다.

'망부운'은 총 2회 공연으로 마련되며, 첫날 공연은 한국어 버전, 이튿날 공연은 중국어 버전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등 광주시립예술단 소속 200여명의 출연진이 함께한다. 김택기 지휘와 조상욱 편곡으로 공연이 이뤄진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급 성악가인 베이스 김일동이 '국왕'을, 메조소프라노 김하늘이 '왕후'를 맡는다.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이 공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공연으로 진행되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성악가들이 함께한다”며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첫 창작 오페라이자 매머드급 공연으로, 향후 광주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 참조.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전석 50% 할인). (공연 문의 062-613-8247) /정겨울기자

‘봄인가 봄, 화란춘성’

《花爛春盛》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23일 오후 5시 남도소리유평터에서 신춘음악회 ‘봄인가 봄, 화란춘성(花爛春盛)’을 공연한다.

기획공연으로 추진되는 이번 신춘음악회는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국내·외 유수 예술인들의 협연으로 파스 한 봄의 감성을 일깨울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몽골 전통민요 선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양금 협주곡 ‘바람의 노래’, 베트남 대표 악기인 단보우 협주곡 ‘이농공감(異弄共感)’, 거칠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색이 돋보이는 통소 협주곡 ‘종전산곡’ 등 기존 국악 무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2017 아시아퍼워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양금 연주자 윤은화, 국내 최고의 통소 연주자 최

전남도립국악단, 23일 신춘음악회

민, 베트남 단보우 연주자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 화이 프엉(Le Hoai Phung)이 출연해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최고의 연주를 선사한다.

관람료는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천원, 학생 5천원, 노인(65세 이상, 본인) 및 장애인·국가유공자(동반 1인)는 무료. (공연 문의 061-285-6928) /정겨울기자



오케스트라 분석 보고서



오늘 보도드릴 내용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의뢰자는 ‘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연주를 넘어 오케스트라 단원을 개인에게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꽤나 신비로운 대상으로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스트라 연행의 특성상 관객들은 연주자들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연주자들은 악보와 지휘자만 응시할 뿐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의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주자들은 무대에 올라와 마치 객석에 아무도 없는 듯 행동을 하다가 지휘자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관객들과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의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TV 속 연예인보다도 더 제한된 정보와 진밀함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의해서만 관객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수줍고 베일에 싸인 집단이 그저 좋고, 그 신비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상상력을 추동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분석 의뢰가 있기 전, 의뢰자 나름의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사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키가 크신 그 분 말이예요. 그 분은 무대에 입장할 때 항상 등을 아주 곧게 펴고 다른 분들보다 살짝 느린 템포로 걸어 나오세요. 저는 그 분이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라거나, ‘그 관악기를 부시는 ○○연주자 말이예요. 그분은 악기를 세게 불 때 남들보다 얼굴이 더 빨개지는 게 아무래도 숨을 좋아하는 분 같아요. 악기 연주할 때 표정을 보면 무척 재미있고 유쾌한 분일 것 같아요’라는 식의.

그들은 주로 오케스트라 단원 개인의 행동관찰을 실시해 왔으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본질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정보를 가공하는 의뢰자의 상상력은 가히 대단했으나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하기에는 역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전반의 성향을 알고자 하는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악기별 집단 표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주자 대부분이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 왔으며 특정한 사운드 스케이프에 오랜 시간 노출됐고, 이 사운드 스케이프가 개인 성향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한 접근입니다. 분석결과 가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 의하면 악기 별로 해당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 사이에 공통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범주로는 현악기와 목관악기 연주자들이 주로 내향적인 성향을 띠며,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띠는다고 합니다. 악기별로는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섬세하게 연주해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경우 자신감이 넘치는 동시에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반면, 저음역대인 첼로와 베이스 연주자들은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플루트는 화려한 솔리스트인 만큼 도도하고 화려하며, 오보에는 음정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밝은 음색으로 멀리까지 소리를 내보내는 트럼펫 연주자들은 활발하고 돋보이기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뢰할만한 정보원이 누구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 수년간 조교로 일해 온 정보원 K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수백명의 악기별 전공자를 만나왔으며 악기별 집단 표본을 분석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혈액형별 특징 같은 이야기를 분석해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 네, 그래서 좀 더 믿을만한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원 J를 한 오케스트라에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기획담당으로서 위장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본래 임무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원 면접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조사원 J는 단원 대부분과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오케스트라엔 분류 가능한 15개 이상의 악기가 있지만, 분류 불가능한 80개 이상의 인격이 있다. 분석은 분류를 조건으로 하기에 나는 일찍이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기를 포기했다. 나의 관심은 ‘조직화 할 수 없는 80개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을 유지해 왔고, 하나의 관현악을 만들어 내는가’로 옮겨졌다. 관점을 옮기니 오히려 80개 인격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 하나의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든 검증된 법(악보)을 지키며,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지휘자)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들은 타당한 법과 납득할 만한 리더 앞에 비로소 섰던 시민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하나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기획담당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신규단원 모집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객원예술감독과 신규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객원예술감독은 월 2회 주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하계합동연습, 정기공연 작품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또한 전남지역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국악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창악, 무용, 기악 등 3개 분야를 모집하며, 오는 30일 남도소리유평터에서 실기시험(자유곡 1곡)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단원은 매월 2회 주말교육과 하계합동연습을 진행하고, 연 1회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전남문화관광재단 및 전남도립국악단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문의 061-980-9966) /정겨울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